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sup>1)</sup>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목차

- I. 서론
- II. 2030 의제의 후속조치 및 평가 원칙
  - 1. 기본 원칙
  - 2. 국가 차원으로의 전환
- III. 국내 SDGs 이행 체계 논의 현황
  - 1. 총괄조직 이슈
  - 2. 모니터링 이슈
- IV.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1. 국가지표 개발
  -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 3. 국제기구 자료제공 및 품질관리
- V. 결론: 통계청의 역할

1) 본 논문은 통계청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필자의 개인적 입장임을 밝혀둔다.

## I. 서론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골격이 거의 갖추어졌다.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총회에서 17개 목표(goals)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s)가 채택된 데 이어, 이 목표들의 이행 진척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241개 지표(indicators)가 올해 3월 UN통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sup>2)</sup> SDGs에 관한 기관 및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s on SDGs, 이하 IAEG-SDGs)이 UN통계처의 작업을 이어받아 지난 1년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 지표를 개발하였다(UN, 2016).

물론 현재의 글로벌지표 리스트가 완벽한 형태는 아니다. 지표는 고도의 정교화 된 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방법론 개발 및 자료 가용성의 확장 등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IAEG-SDGs, 2016a). 그러나 이번 UN통계위원회의 결정 이후 많은 국가들이 본격적인 SDGs 이행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DGs를 채택한 UN 결의문서인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는 <그림 1>과 같이 ① 비전과 원칙을 담고 있는 선언문, ②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③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④ 후속조치 및 평가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2030 의제 구조



출처: UNDG (2015)

2) 241개의 지표 중 9개는 다목적지표로 2~3개의 세부목표에서 반복되므로 실제 지표의 수는 230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지역, 국가에 따른 지표를 구별하기 위해 각각을 글로벌지표, 지역지표, 국가지표로 통칭하고자 한다.

2030 의제는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주요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체화하여 도출해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 목표들은 국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후속조치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후속조치 및 평가 부문이다. 「2030 의제」는 새로운 목표의 단순한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을 목표 17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통계를 활용한 모니터링이다(권율, 2015). 모니터링은 구체적인 지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될 예정인데, 글로벌 차원의 정부 간 협의과정에서 통계가 의제의 한축을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UNESCAP, 2014).

이처럼 엄격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환경으로의 변화는 본격적인 SDGs 이행에 앞서,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30 의제」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원칙을 따르되, 국내 지속가능발전관련 기존 메커니즘을 SDGs의 야심찬 포부를 구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I. 2030 의제의 후속조치 및 평가 원칙

### 1. 기본 원칙

「2030 의제」 제74항에는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9가지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표 1〉참고). UN은 후속조치 및 평가가 ①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② 보편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하며, ③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정보기반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은 ④ 참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⑤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체계는 ⑥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⑦ 접근 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세분화된 고품질의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⑧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⑨ UN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 1〉 후속조치 및 평가 기본 원칙

1	모든 후속조치와 평가는 자발적이고 국가가 주도하며, 국가의 현실·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정책 자율성과 우선순위를 존중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 의식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열쇠이므로, 글로벌 차원의 평가는 주로 국가의 공식 원천 데이터에 기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 평가의 결과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2	이 과정은 이행수단을 포함한 보편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 연관된 특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목표들의 이행 진전을 추적할 것이다.
3	이 과정은 보다 장기적인 지향점을 유지하고, 성과·도전·격차 및 중요한 성공요소를 파악하며, 국가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필요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동원에 기여하고, 해결책과 모범사례 파악을 지원하며, 국제 개발 체제의 조율과 효과성을 증진할 것이다.
4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투명한 것이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보고를 지원할 것이다.
5	이 과정은 인간중심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인권을 존중하고 최빈곤층, 가장 취약한 계층 그리고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6	이 과정은 가능한 경우, 기존의 플랫폼과 과정을 기초로 하여, 중복을 피하며, 국가의 상황·역량·수요와 우선과제에 부응할 것이다. 동 과정은 부상하는 문제와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감안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국가 행정 부처나 기관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7	이 과정은 철저하게 국가주도의 평가와 함께 고품질의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소득·성·연령·인종·민족·이주상태·장애와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된 자료에 입각한 증거에 기초할 것이다.
8	이 과정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중소득국에서 국가 데이터 체계와 평가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한 역량구축 지원 개선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이 과정은 UN 체제와 기타 다자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출처: UN (2015a)

후속조치 및 평가는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의 다층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현될 것이다(〈표 2〉 참고). 이 중 모든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각 국가는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국가별 평가를 토대로 상호학습,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UN지역위원회와 같은 지역포럼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는 국가 차원과 글로벌 차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무총장의 연례이행보고서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 때 UN총회(4년 주기) 및 경제사회이사회(1년 주기) 주관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이 감독역할을 하게 된다. 이 포럼에서는 각 국가의 성공사례·도전과제·교훈 등의 경험이 공유되고, 범분야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표 2〉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에서의 후속조치 및 평가

글로벌	47. 총회·경제사회이사회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은 글로벌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평가를 감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82. 동 포럼은 성공사례·도전과제·교훈 등 경험의 공유를 촉진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지침·권고를 제공할 것이다. 포럼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전반적인 일관성과 조율을 증진할 것이다. 동 포럼은 본 의제가 적절하고 야심찬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진전·성과 및 선진국·개도국이 직면한 도전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들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83. 고위급 정치포럼의 후속조치·평가는 글로벌 지표 체계 및 국가 통계 체계가 생산한 자료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무총장이 UN 기구와 협력하여 준비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연례 이행 보고서가 활용될 것이다. 고위급 정치포럼은 또한 과학과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의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 기반 문서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85. 범분야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제별 이행 진척도 동 포럼에서 논의될 것이다.
지역	80. 지역·소규모지역 차원의 후속조치·평가는 자발적 평가를 포함한 상호학습,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목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유용한 기회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지역·소규모지역 위원회·기구들의 협력을 환영한다. 포용적인 지역 평가는 국가 차원의 평가에 기초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 등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81. 지역 차원의 기존 후속조치·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충분한 정책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포럼을 모색하도록 권고한다. UN지역위원회가 이러한 점에서 회원국들을 계속 지원하기를 권고한다.
국가	47. 정부는 향후 15년간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의 진전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평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78.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 의제의 전반적인 이행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야심찬 국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가발전·지속가능발전전략과 같은 적절하게 준비된 기존의 계획 문서에 기초할 수 있다.
	79. 우리는 또한 회원국들이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지방 차원의 정기적·포용적 진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평가는 국가 상황·정책과 우선과제에 따라 토착민,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기초해야 한다. 국회와 기타 기관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UN (2015a)

## 2. 국가 차원으로의 전환

국가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국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SDGs 17개 목표 가운데에서도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목표들을 선정하고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원안 그대로 국내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김태균·김보경·심예리, 2016). 그러나 목표를 국가적인 상황이나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수요(needs), 강점,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도전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대중의 관심, 그리고 조정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예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행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 수집과 보고 체계의 개선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UNESCAP, 2015).

국가 단위의 SDGs 연착륙 지원기구인 UN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이하 UNDG)은 계획부터 이행, 그리고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8개 업무영역을 제안하고 있는데<sup>3)</sup>,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계획단계에서는 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②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적용하며, ③ SDGs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행단계에서는 ④ 수평적 그리고 ⑤ 수직적 정책 정합성을 창출하고, ⑥ 소요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점검단계에서는 ⑦ 모니터링 및 보고, 책임성과 ⑧ 위험 요소 진단 및 적응성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 업무는 ①번부터 ⑧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계획단계의 세 가지 업무와 함께 점검단계의 모니터링 업무는 조속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NDG, 2015).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SDGs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니터링, 보고 및 책임성 영역의 4개 세부업무, 즉 ① 지표 개발 및 자료 수집, ② 자료 세분화(disaggregation), ③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④ 평가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분야의 해외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SDGs의 국내 적용을 위한 8개 업무영역

계획	1	대중 관심 유도
	2	다양한 이해당사자 접근방식의 적용
	3	국가, 국가하위 그리고 지방 수준 상황에 맞춘 SDGs 재설계
이행	4	수평적 정책 정합성 창출
	5	수직적 정책 정합성 창출
	6	소요 예산 배분
점검	7	모니터링, 보고 및 책임성
	8	위험 요소 진단 및 적응성 증진

주: 회색부분은 즉시시행(initiate now), 흰색부분은 장기시행(initiate over time) 영역을 의미함

출처: UNDG (2015)

3) UNDG는 1997년 창설된 기구로, 150여개 국가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특별기관 및 사무국 그리고 집행프로그램, 자금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이후 UN 최고위급 협력 포럼인 주요 협력 행정위원회(UN System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SDGs를 수행하는 UN 기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 지표 개발 및 자료 수집

SDGs 이행 출발점으로서의 글로벌지표 리스트가 개발된 이후 국가 및 지역차원의 지표 개발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 지표들은 글로벌지표 리스트를 보완할 것이다.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지표개발을 위해 통계청과 그 외 통계 생산기관, 그리고 국가발전전략을 주도하는 총괄기구 사이에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협력체계의 중요한 역할은 IAEG-SDGs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국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 수립된 국가통계발전전략을 수정하고, 여기에 SDGs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계획 등을 반영해야 한다(UNDG, 2015).

모니터링은 전통적인 현장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한 자료 뿐 아니라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나 빅데이터(Big data), 통계적 목적의 지리공간정보(geo spatial information) 등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생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자료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SDGs 모니터링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료 혁명(data revolution)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 조사자료 간 결합, 서로 다른 원천 자료 간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가 급속히 팽창하며, 이들을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 근거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표개발 관련 해외동향은 어떠한가? 유럽국가의 경우 1992년 리우(Rio)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이하 리우회의)의 결과물인 「의제21(Agenda 21)」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틀을 재편하여 SDGs를 포용하고 있는데,<sup>4)</sup> 이들 국가에서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통계청이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 벨기에를 비롯한 사이프러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나 정부간 위원회, 환경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의 수는 적게는 15개(프랑스), 17개(노르웨이), 34개(핀란드), 많게는 150개(이탈리아), 155개(헝가리)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70개와 100개 사이의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다(Pisano, Lange, Lepuschitz and Berger, 2015).

4) 의제21에는 각국 정부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목표를 균형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1994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완성하였다. 2001년에는 EU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수립되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b).



## 2) 자료 세분화

자료 세분화는 SDGs의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no one left behind)’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통계전략이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MDGs에서는 국가 평균 수준에서의 변화를 추적하여 목표를 진전시켰다면, SDGs에서는 국가 전체 보다는 가장 취약한 집단의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라는 포용성의 비전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2020년까지 세분화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구축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지표가 공식통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세분화 되어야 하고 각 국가는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율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4〉 세분화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적절하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지표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완전히 세분화된 형태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율

출처: UN (2016)

특정 지표가 어떠한 특성으로 세분화되어야 하는지, 세분화될 경우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세분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위집단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수치를 얻기 위해서 표본규모를 확대하거나, 취약집단을 추적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수집방법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지침에 제시된 세분화를 위해서 조사항목의 추가 혹은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자료분석 과정에서 행정자료 등의 보조정보를 활용한 간접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소지역 단위의 통계치를 생산해낼 수도 있다.

## 3)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모니터링은 보통 계량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그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UN, 2015b). UNDG(2015)는 SDGs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





료와 보고체계를 활용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 스위스의 MONET 지표 시스템(MONET indicator system)은 모범사례로 꼽힌다. 스위스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의 현재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스위스의 현황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3년에 통계청과 연방환경국, 공간개발연방사무국, 개발협력국이 연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75개 지표로 구성되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한 글로벌 지표군, 17개 주요 지표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표는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갱신된다(FSO, 2016) (<그림 2> 참고).

<그림 2> MONET 사이트 및 17개 주요 지표군

## MONET 사이트

News	Topics	Regional Data	World Data	Data Library	Services	Institutions	150 years
▼	▼	▼	▼	▼	▼	▼	▼
<b>Sustainable development</b> Overview What's new? Indicators <b>Indicators and principles</b> Explanation of symbols Glob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re indicator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alyses Ecological Footprint Look it up! Press Releases Newsletter Publications Statistical Encyclopedia Contact Statistical sources and concepts Enquiries, Sources Definitions Voting/indications Pleasures Workshops Posters Show all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Topics > Sustainable development > Indicators > Indicators and principles <a href="#">Print this page</a>   <a href="#">Share</a>						
<b>Indicators and principles</b>   <b>The MONET indicator system</b> is Switzerland on the ro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ONET system is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on the basis of indicators. MONET is a joint activity of the Federal Statistical Office (FSO), the <a href="#">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a> , the <a href="#">Federal Agency for Spatial Development (ARE)</a> and the <a href="#">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a> . <b>Indicators</b> <b>Key indicators</b> 17 key indicators measure progress on the ro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b>Indicators of the glob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b> Selected MONET indicators show Switzerland's progress on the road to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 href="#">more on the global dimension</a> . The complete set of MONET indicators is available in <a href="#">German</a> or in <a href="#">French</a> . The indicators are updated once a year in autumn. <b>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b> <b>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b> 47 principles (previously called "postulates") indicate the direction to be taken in order to create and maintain sustainable development. <b>Update of the indicators and revision of the system</b>							

## 17개 주요 지표군

Meeting needs – how well do we live?	Trend Targeted/observed	Assessment
People's health is improving	↗	✓
Income is increasing	↗	✓
Convictions for serious violent offences are on the rise	↘	✗
The unemployment rate based on ILO definition is rising	↗	✗
Fairness – how well are resources distributed?	Trend Targeted/observed	Assessment
The poverty rate decreases	↘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rising	↗	✓
The wage gap between women and men is gradually narrowing	↘	✓
Preservation of resources – what are we leaving behind for our children?	Trend Targeted/observed	Assessment
Teenage reading skills are improving	↗	✓
After an increase, the public debt has returned under the level of 1992	↘	✓
The investment to GDP ratio is about the same	↔	⚠
More people are work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	✓
The populations of breeding birds are on the rise	↗	✓
The settlement area required per person is increasing	↗	✗
Decoupling – how efficiently are we using our natural resources?	Trend Targeted/observed	Assessment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freight transport intensity	↔	⚠
The public to total transport ratio is increasing	↗	✓
The per capita consumption of energy is decreasing	↘	✓
Material intensity is decreasing	↘	✓

출처: FSO, 2016(좌); FSO, 2015(우)

한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은 1년 주기, 2년 주기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탈리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등이 1년 주기인 반면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한편, 체코의 경우 부정기적이다(Pisano et al., 2015).

제 I 장

개발협력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4) 평가 체계

가공되지 않은 모니터링 자료가 충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지표의 변화 원인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분석과정에는 정책,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등의 효과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UN, 2015b). 유럽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는 세가지 차원의 평가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내부 평가(internal review)이다. 이는 정부 부처 내부 책임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외부 평가(external review)이다. 책임감 있는 연구소나 독립적인 연구자에 의한 평가가 여기에 해당하나, 유럽국가에서 이 평가방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셋째는 동료 평가(peer review)로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 감사부서(audit departments)에 의한 평가도 진행될 수 있다(Pisano et 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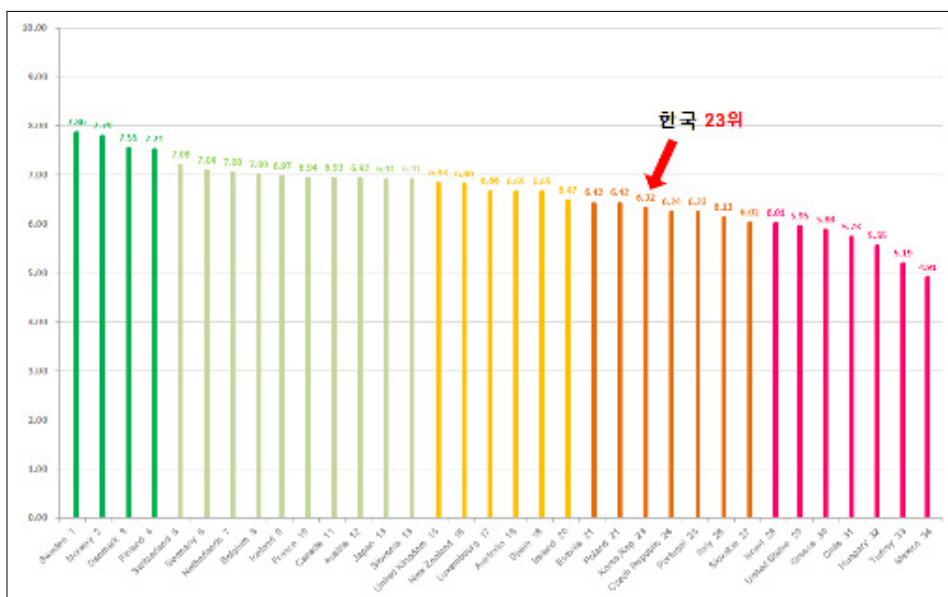
### III. 국내 SDGs 이행 체계 논의 현황

#### 1. 총괄조직 이슈

선진국의 SDGs 이행정도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 크롤(Kroll, 2015)은 17개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34개 지표를 선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의 현재 지속가능발전의 위치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림 3>에서 보듯 OECD 34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총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7.86점(스웨덴)에서 4.91점(멕시코)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은 6.32점으로 23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위보다도 ‘어느 국가도 모든 목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다. 비교적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조차도 특정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5) 선정된 대표지표의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개별 영역별 점수 보다는 전체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3〉 OECD 국가의 SDGs 이행 현황



출처: Kroll, 2015 (그래프의 좌·우측 저자 변경)

우리나라도 SDGs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나, 국내에서 이행체계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행과제를 고민하는 정부주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SDGs 자체가 광범위한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SDGs의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태균 외, 2016).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이해당사자 간의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위한 협력 체계를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축하자는 의견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양수길, 2016). 그런데 SDGs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협의체 내지 주관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정부기관에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조직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태균 외, 2016). UN 또한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체계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국내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협력체계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정부위원 7명<sup>6)</sup>, 민간위원 25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20년

6)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포함되어 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데, 2006년 제1차 계획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1월에 제3차 기본계획(2016~ 2035년)을 수립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SDGs 채택이라는 글로벌 환경과 지난 평가 결과로 드러난 취약 분야 및 전문가 진단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그 내용과 범위를 수정하였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a).

그런데 현 법령 체계 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SDGs 이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김태균 외, 2016).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포괄하는 범위가 SDGs에 비해 협소하다는 것이다. 이는 SDGs 채택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계기인 1992년 리우회의는 환경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하였으나, 20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위기, 사회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데 공감하여 SDGs 도입에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2015년 종결되는 MDGs를 계승하는 Post-2015 논의와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김지현, 2014).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 주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리우회의가 2012년에 SDGs를 설정하면서 그 주제가 확대된 것이다. 환경부와 통계청은 SDGs 세부목표와 제3차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소관부처를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 거의 모든 부처가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DGs 주제의 광범위성과 범부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UN은 SDGs 이행 검토를 위해 시의성과 신뢰도 등이 높은 양질의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통계청의 역할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SDGs의 총괄기능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 지위의 격상, 관계부처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통계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모니터링 이슈

총괄조직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체계는 SDGs 이행 초기에 구축되어야 이행 및 평가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06년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 초기에는 경제·사회·환경 3개 분야, 14개 영역, 77개 지표로 출발하였으나, 변화된 SDGs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일부 지표를 수정보완하면서 84개 지표가 되었다. 지표체계를 보면 경제분야는 3개 영역(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 23개 지표,

사회분야는 6개 영역(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재해/안전, 인구) 32개 지표, 환경분야는 5개 영역(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현재 2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년 간의 단기평가와 기본계획 전체기간에 대한 장기평가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통해 개선 추세와 악화 추세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이라는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지속가능발전관련 동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 IV.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1. 국가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출발은 국가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지표는 강건한(robust) 자료와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존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SDGs의 세 가지 차원, 즉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적으로 갖춘 통합적인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Pisano et al., 2015).

#### 1) 국내 기존 지표 체계 검토

국내에서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지표체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함께 통계청의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 정부합동의 e-나라지표가 있다. <표 5>는 SDGs 지표를 포함하여 국내 기존 지표들의 주요 특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먼저, 국가주요지표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자 만들어진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삶의 질 연구, 삶의 질 연구의 보완 연구로서 2000년대 EU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의 질 연구,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강조한 지속가능발전연구가 그 토대이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나라 개념을 사회 혹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개념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출발한 것이 국가주요지표이다(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는 총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 139개 주요지표 및 186개 보조지표, 그리고 국제비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구성을 보면, 경제부문은 5개 영역(국민계정, 재정/금융, 산업/생산, 고용/노동, 소득/소비)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다시 20개 하위영역 40개 지표로 세분화된다. 사회부문은 9개 영역(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 문화/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이 33개 하위영역과 82개 지표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문은 2개 영역(생활환경/오염, 생태환경/자연자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9개 하위영역과 21개 주요지표로 나뉜다. 이 지표는 통계청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으로 2013년도에 개발하여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지표 개편 작업 중에 있다.

삶의 질 지표는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 전환에 따라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등을 근간으로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이다. 2008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 2014년부터 지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 영역을 보면, 물질적 부문과 비물질적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전자에는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의 4개 부문이, 후자에는 건강, 교육,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의 8개 부문이 포함된다. 총 8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2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79개 지표만 공개하고 있다(심수진·이희길, 2016).

한편, e-나라지표는 정부의 38개 중앙 부처들이 작성하여 통합·제공하는 국정통계 웹사이트로 2006년에 개발되었다. 국정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부처의 정책과 관련한 주요 지표들을 발굴한 것이다. e-나라지표 시스템은 작성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관리주체가 되고, 통계청은 시스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e-나라지표는 현재 15개 영역, 65개 하위 영역, 70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역별 분류는 국가주요지표와 매우 유사하다(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 그리고 e-나라지표 모두 통계청에서 관리 및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계청 지표 사이트에는 지표정의서, 통계표 및 시계열 그래프와 함께 분석결과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들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비해 비교적 자주 자료가 갱신된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제공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국가주요지표와 삶의 질 지표는 온라인 외에도 1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후자는 시계열 추세와 함께 개선 및 악화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표 5〉 국내 지표의 주요 특성 비교

구분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구성	14개 영역 84개 지표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 139개 주요지표	15개 영역 65개 하위영역 705개 지표	12개 부문 81개 지표
시작년도	2006	2014	2006	2014
모니터링주기	2년	수시	수시	분기
모니터링내용	추세 및 평가	추세	추세	추세 및 평가
자료제공 방법	보고서	보고서/온라인	온라인	보고서/온라인

출처: 각 지표 체계 검토 후 저자 정리

그런데 각 지표는 작성목적에 따라 영역 및 지표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사람과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강조하여 경제성장 측면보다 개인 삶의 질 증진의 총합으로서의 사회발전에 치중하였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국가주요지표는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국가주요지표는 부문의 구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표 항목의 구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자가 환경지표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석현호 외, 2013). 이와 같은 차이는 국내 주요 지표 간 영역을 비교한 〈표 6〉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나머지 세 지표체계에 비해 환경 부문 영역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삶의 질 지표의 경우 물질과 비물질로 구분되어 경제·사회·환경으로 구분되는 다른 지표의 대분류 체계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영역별 내용만을 고려하여 연결할 경우 〈표 6〉과 같이 경제·사회·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고, 주관적 웰빙은 이 모든 내용을 고려한 개인의 평가항목이므로 통합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표 6〉 국내 지표 체계내 영역 비교

구분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경제	경제구조	국민계정	국민계정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소비/생산	재정/금융	산업/금융	
		산업/생산		
		고용/노동	고용/노동	
	정보화	소득/소비	소득/소비	

7) 한편, e-나라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삶의 질 지표와 달리 국가 정책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작성된 공급자 중심의 지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석현호 외, 2013), 통계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국가주요지표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구분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	인구	인구	인구	
		가구/가족	가구/가족	가족/공동체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문화/여가	문화/여가	문화/여가
	주택	주거	주거	주거
		교통	교통	
	재해/안전	안전	안전	안전
	형평성	사회통합	사회통합	
				시민참여 사회복지
환경		생활환경/오염	생활환경/오염	환경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생태환경/자연자원	생활환경/자연자원	
통합				주관적 웰빙

출처: 각 지표 체계 검토 후 저자 정리

이러한 차이는 각 지표가 도출된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 및 지표 간에 상당한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다(〈부록1,2,3〉 참고). SDGs가 서로 다른 배경 하에 태어난 지표체계들을 아우르고자 하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국가지표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 2) 글로벌지표 검토 및 IAEG-SDGs 활동 대응

SDGs 국가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 기존 지표들과 함께 글로벌지표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세부목표를 달성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지표 리스트 내에서도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법론은 있으나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국내에 적용가능한 것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통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글로벌지표의 작성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국가지표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요구하는 이

상적인 자료 수준과 국내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 사이의 격차, 개념 혹은 방법론 상의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다.<sup>8)</sup>

국가지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IAEG-SDGs의 활동이다. IAEG-SDGs는 글로벌지표 뿐 아니라 지표의 측정방법인 메타 데이터(meta data)의 제공 등 방법론 기준을 제시하는 책임주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법론 여부 및 자료 가용성에 따라 지표를 분류(tier)하고,<sup>9)</sup> 그에 따라서 향후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표군에 대한 개선 및 개발 계획을 2020년과 2025년에 각각 보고할 계획이므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IAEG-SDGs, 2016).

마지막으로 국가지표 작성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를 적시하고자 한다. 국가지표 프레임워크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를 통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편성만큼 국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지표가 글로벌 수준의 가치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향후 개발될 국가지표는 다른 모든 지표체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역구성, 지표명, 측정산식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근에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개적이며 참여적인 평가방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향후 개발될 국가지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스위스의 MONET 지표 시스템과 국내 삶의 질 지표 시스템과 같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삶의 질 지표 시스템에서는 지표값과 지표정의서,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최근 소식 및 관련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하향식(top down) 방식의 기존 지표 선정과정 보완을 위해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심수진·이희길, 2016).

SDGs의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설정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UN은 참여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소통방식을 진행해왔는데, 국가지표 설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

8)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글로벌지표에 대한 국내 적용가능성 평가 연구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말에 연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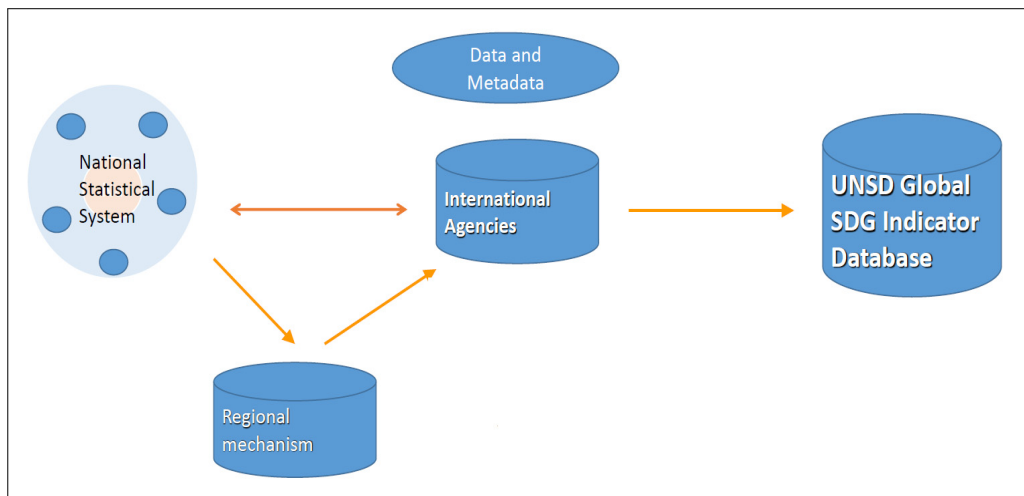
9) IAEG-SDGs는 방법론 및 자료 가용성의 여부에 따라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를 티어1,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를 티어2, 지표에 대한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단계인 경우를 티어3으로 분류한다.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온라인 의견수렴 공간은 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삶의 질 지표 결과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SDGs는 국가 차원과 함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비교가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도 동시에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국제기구 자료 제공 및 품질관리

SDGs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및 보고와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 제공이다. 현재 IAEG-SDGs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고절차는 <그림 4>와 같이 국가가 국제기구(혹은 지역별 메커니즘)로, 국제기구는 SDGs 지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제공하는 흐름이다. 물론 자료는 비교가능하고 표준화된 공식통계에 기반해야 하며, 만일 다른 원천자료나 방법론이 사용될 경우, 국가통계기관에 의한 검토 및 합의를 거쳐 투명한 방법으로 제시될 것이 강조되고 있다(IAEG-SDGs, 2016b).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IAEG-SDGs가 제안한 글로벌지표 보고 메커니즘



출처: IAEG-SDGs (2016)

분산형 통계시스템<sup>10)</sup>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 1회 통계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통합된 자료제공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기구 오·남용 사례가 최근 이슈화된 적이 있다. 2014년의 「OECD Factbook」에서 성인흡연률이 남녀가 뒤바뀌어 제시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통계청, 2016). 이러한 배경 하에 통계청에서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회 실시하던 국제기구 자료제공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자료제공시스템(Korean Data Provision System)을 통해 국제기구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제공통계에 대한 실시간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미 제공된 자료가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기관들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품질진단 시 국제기준 정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계획에 있다(통계청, 2016a).

## V. 결론 : 통계청의 역할

지금까지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 보았다. UN은 그 어느 때보다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s 이행점검을 위해 신뢰할 만한 세분화된 고품질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역량강화와 자료 혁명이 논의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 통계청은 자연스럽게 SDGs 자료를 생산·관리·모니터링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도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

첫째, 통계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SDGs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 행정자료, 빅데이터, 지리정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10) 각국의 통계제도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대부분의 통계를 통계청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집중형과 주요통계는 통계청이지만 각 기관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통계는 개별기관 책임아래 작성하는 분산형으로 분류된다. 분산형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라도 통계의 중복생산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조정업무를 통계청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집중형을 가미한 분산형 통계제도'라 부른다.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 조정이란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연유되는 통계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새로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각종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계활동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통계청, 2013).

활용하기 위해 품질을 점검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 생산자에서 조정자의 모습으로 진화해야 한다(SDSN, 2015). SDGs 주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모든 부처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계 조정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정기능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더 광범위한 통계 생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차원의 모니터링이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계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개념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의 적용은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료 제공 등의 과정에서 국가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넷째 SDGs 이행 과정에서 어느 국가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계역량강화에 선진국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SDGs에서 통계작성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향은 올해 통계청의 사업목표와도 부합한다. 2016년도 통계청의 4대 목표는 국가통계 생산패러다임의 변화, 국민수요에 부응한 통계개발개선,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확대,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제고이다. 현장조사방법의 선진화와 함께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통계 등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며, 국가주요지표 등 통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SDGs 지표 연구 및 개도국 통계역량강화사업, 미래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 중이다(통계청, 2016b). SDGs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서 통계청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참고문헌〉

- 강상인. 2015. “UN SDGs의 한국화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국가계획의 보완 방향과 통합운영 방안”.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2015.8.24. 컨퍼런스 보고서). 세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 김태균 · 김보경 · 심예리. 2016.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내 이행 정책수립을 위한 대응방안”. 외교부 연구용역결보고서. 서울: 외교부
-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1: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19호 (2014.12월).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권율. 2015. “개발제정을 위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한국의 역할과 과제”.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2015.8.24. 컨퍼런스 보고서). 세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 양수길. 2016.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 기조발제”(2016년 6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 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연구 I : 지표체계”.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 대전: 통계청
- 석현호 외. 2014. “국가주요지표 보정연구 I : 연구 방법과 내용”.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 대전: 통계청
- 심수진 · 이희길. 2016. “삶의 질 측정: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조사연구』 17(2): 185-20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a.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 관계부처합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b. “2016년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안)”. 관계부처합동
- 통계청. 2013. 『통계행정편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pi/6/3/index.static> (접속일: 2016.7.14.)
- \_\_\_\_\_. 2016a. “국제기구 자료제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설명회 자료”. 대전: 통계청
- \_\_\_\_\_. 2016b. “2016 주요 업무추진계획”. <http://kostat.go.kr/portal/korea/kor.pi/3/1/index.static> (접속일: 2016.7.14.)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FSO. 2015. "Sustainable Development—A Brief Guide 2015: 17 key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Neuchâtel: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FSO)
- \_\_\_\_\_. 2016. MONET Indicator system, available at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2/01.html](http://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2/01.html) (접속일: 2016.7.14.)
- IAEG-SDGs, 2016a. "47th Sess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utcome on global SDG indicators". Presented at the the third meeting of the IAEG-SDGs on 30 March–1 April, 2016, Mexico City
- \_\_\_\_\_. 2016b. "Report Third Meeting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ESA/STAT/AC.318/L.3).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3rd-IAEG-SDGs-Meeting-Report.pdf> (접속일: 2016.7.10.)
- \_\_\_\_\_. 2016c. "Global Reporting Mechanism". Presented at the the third meeting of the IAEG-SDGs, 30 March–1 April, 2016, Mexico City
- IEAG. 2014. "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 Kroll, Christia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the rich countries ready?", Available at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 (접속일: 2016.7.1.)
- Pisano, Umberto, Lisa Lange, Katrin Lepuschitz and Gerald Berger. 2015. "The European Context for Monitoring and Reviweing SDGs: How EU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level are approaching the Post-2015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Quarterly Report No.37
- SDSN. 2015. "Getting Star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SDSN, available at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5/12/151211-getting-started-guide-FINAL-PDF-.pdf> (접속일: 2016.7.14.)
- UN. 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ew York: United Nations



UN, 2015b, “Thematic evaluation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lessons learned for the post-2015 era” (E/AC.51/2015/3).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New York: United Nations

UNDG, 2015. Mainstream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im Reference Guide to UN Country Team. New York: UNGDG, available at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 (접속일: 2016.6.20.)

UNESCAP, 2014,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tatistical Development”. STATS BRIEF (October 2014) Issue No.01. Bangkok: UNESCAP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부록1〉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01) 빈곤인구비율(%)	3. 교육	3-1. 교육수준	21) 고등학교 순졸업률(%)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2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03) 사회복지지출(%)			23) 공교육비 지출(%)
			04) 노동소득분배율(%)			
			05) 실업률(%)			
		1-2. 노동	06) 고용률(%)	4. 주택	4-1. 생활환경	24)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07) 근로시간(시간/월)			25) 주택 수 (인구 1천 명당)
			08)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26)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0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1-3. 남녀평등	10)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5. 재해·안전	5-1. 범죄, 재해	27) 범죄발생률(건/10만 명)
			1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8) 자연재해 피해(명, 억 원)
			12) 관리직 여성 비율			29) 사고(성)사망만인율(%)
	2. 건강	2-1. 영양상태	13) 유소년 영양 상태(%)			
			14) 영아 사망률(%)			
		2-2. 사망률	15) 자살 사망률(%)			
		2-3. 수명	16) 기대수명(세)	6. 인구	6-1. 인구변화	30) 인구 증가율(%)
		2-4. 식수	1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1) 인구 밀도(명/km <sup>2</sup> )
		2-5. 건강관리	18)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32) 고령인구비율(%)
			19)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20) 비만율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33) 온실가스 배출량 (LULUCF 제외)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48) 연안오염도(mg COD/L)
			34)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 <sub>2</sub> /인)			49)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수(종)
			35)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tCO <sub>2</sub> /10억원)			50) 해양보호구역 면적 (km <sup>2</sup> )
		1-2. 오존층	36)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톤; HCFCs)		3-2. 어업	51) 갯벌 면적 증감 (km <sup>2</sup> )
						52) 주요지표중(5종)의 자원량 변화(만톤)
		1-3. 대기질	37)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SO <sub>2</sub> , NO <sub>2</sub> , PM-10, PM-2.5, O <sub>3</sub> ) (초과횟수/측정지점)			53)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톤)
	2. 토지	2-1. 농업	38) 농지면적 비율(%)	4. 담수	4-1. 수량	54) 취수율(%)
			39)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55) 1인당 1일 물소비량 (L/인/일)
			40) 식량자급률 (사료용 포함, %)			56) 물 재이용량 (백만톤)
			41) 화학비료 사용량(kg/ha)		4-2. 수질	57) 4대강 수질오염도(mg/L) (BOD, T-P)
						58)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영역	항목	지표
경제	2-2. 산림 2-3. 도시화		42) 농약 사용량(kg/ha)	5. 생물 다양성	5-1. 생태계	
			43)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59) 자연보호지역비율(%)
			44) 1인당 도시공원 면적(m <sup>2</sup> /인)			60) 국가생물종 목록수(종)
			45) 목재 벌채 정도(%)			61) 멸종위기종 수(종)
			46) 도시화율 (%)			
			47) 수도권 인구 집중도(%)			
	1. 경제 구조	1-1. 경제이행	62) 국내총생산(GDP)(억 US\$)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82)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천 명, %)
			63) 1인당 GDP (US\$)			
			64) 경제 성장률(%)		3-2. 정보 인프라	83)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
			65) GDP 대비 순 투자율(%)			
			66)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67) 소비자 물가지수			
		1-2. 무역	68) 무역수지 (백만 US\$)		3-3. 과학기술	84) GDP 대비 R&D 지출 비율(%)
		1-3. 재정상태	69) 조세부담률(%)			
			7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4. 대외원조	71) GNI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2. 소비/생산	2-1. 에너지사용	72)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인)			
			73)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74) 에너지 원단위(TOE/백만 원)			
		2-2. 폐기물관리	75)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ton/일)			
			76) 지정폐기물 발생량(ton/일)			
			77)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200L 환산드럼)			
			78) 폐기물 재활용률(%)			
		2-3. 교통	79)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80) 자전거 도로 총 연장 (km)			
			81)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출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b)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부록2〉 국가주요지표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경제	국민 계정	국내총생산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 노동소득분배율	•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	
		투자	• 투자율	• 건설투자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 •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	• 경상수지비용	
		대외거래	• 경상수지비용		• 수출입비용	
	• 무역의존도		•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용 • 주요 상대국별 수입비용			
	재정과 금융	재정규모와 구성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정부세입구성			
			• 정부지출구성			
		재정안정성	• 국가채무비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비용 • 공공부문부채비용	• 국가채무비용	
			• 재정수지비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지비용	• 재정수지비용	
		금융시장 규모	• 금융자산비용	• 주식시가총액비용 • 기업공개실적 • 총여신비용	• 금융자산비용	
		금융시장 안정성	• BIS자기자본비용	• 무수익여신비용	• BIS자기자본비용	
			• 대외채무비용	• 단기외채비용 • 외환보유액비용	• 대외채무비용	
		금융시장	• 국고채금리	• 기준금리 • 회사채금리	• 해외주요시장금리 • 해외주요정책금리	
			• 코스피주가지수	• 코스닥주가지수	• 해외주요주가지수	
			• 환율		• 해외주요통화환율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 산업구성	• 산업집중도 • 식량자급률 • 전력공급예비율 • 서비스업 산업구성	• 산업구성
				• IT산업생산비용	• 반도체생산 • 디스플레이생산 • 바이오산업생산 •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 거주자 해외직접 투자비용	• 외국인직접투자비용	
	생산성		• 노동생산성	•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총 소요생산성증가율	• 노동생산성	
			• 중소기업임금비용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신규진입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용		• 연구개발투자비용
			• 특허출원증가율	• 연구개발지출대비 특허출원수 • 한국의 세계기술혁신 순위 • 한국의 세계기술수용성 순위	• 특허출원 수
	고용과 노동	고용	• 고용률	• 고용률(OECD 기준)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비임금근로자비용	• 고용주비용 • 자영업자비용 • 무급가족종사자비용	• 비임금근로자비용
			• 취업자의 산업구성	• 서비스업취업자비용 • 취업자의 직업구성	• 제조업취업자비용 • 도소매·숙박업 취업자비용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비용
		임금	•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용	• 한시적 근로자비용 • 시간제 근로자비용
			• 임금격차 (임금10분위배율)	• 성별 임금차이 •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 임금격차 (임금10분위배율) • 성별임금차이
			• 저임금근로자비용	•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 저임금근로자비용 • 중위임금대비최저 임금
		근로조건	• 근로시간	•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 취업자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산재사망률	• 산업재해율	
			• 일자리만족도	• 임금만족도 • 일자리장래성만족도	
		노사관계	• 노동조합조직률	• 근로손실일수	• 노동조합조직률 • 단체협약적용률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 개인소득	• 소득만족도	• 개인소득
			• 가구소득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 가구소득변화인식	• 가구소득
			• 가구순자산	•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 가구자산과 부채 • 가구부채변화인식	
		소득분배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적빈곤율	• 지니계수
		소비와 물가	• 소비지출	• 소득대비지출 • 가구 소비지출구성 • 소비생활만족도	• 소비지출
			• 물가상승률	• 생활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 물가수준
		저축	• 저축률		• 가계저축률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인구	인구규모	• 총인구	• 시도별인구	• 총인구 • 세계 주요 도시 인구
		인구변화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
			• 출산율	• 조출생률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사망률	• 영아사망률	• 조사망률
			• 체류외국인	•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 중위연령	•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
			• 성비	• 출생성비	• 성비
			• 부양 인구비	• 고령화지수	• 부양 인구비
	가구와 가족	가족구성	• 가구원수		• 평균 가구원수
			• 한부모가구 비율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비율	• 한부모 가구 비율
		가족형성	• 혼인율	• 평균초혼연령 • 결혼선호율 • 국제결혼비율	• 혼인율
			•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 • 이혼반대율	• 이혼율
		가족관계	• 가족관계 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 자녀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 가족시간	•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 어린이집이용률	• 육아휴직자수	• 어린이집 이용 비율
			• 노인과 자녀 동거율	• 부모부양의무수용률	
	건강	건강상태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결정 요인	• 흡연율	• 간접흡연율 • 청소년흡연율	• 흡연율
			• 음주율	• 알코올소비량	• 알코올소비량
			• 신체활동 실천율	• 걷기 실천율	• 신체활동 실천율
			• 비만율		• 비만율
		보건의료 서비스	• 의사 수	• 병상 수 • 간호사 수	• 의사 수 • 병상 수 • 간호사 수
			• 국민의료비비율	• 공공의료비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암 생존율	• 대장암 생존율 • 유방암 생존율	• 대장암 생존율 • 유방암 생존율
			• DPT 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 접종률	• DPT 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교육	교육기회	•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공교육비 비율
			• 사교육비	• 사교육 참여율 • 가구 교육비 지출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학업중단율	• 취학률
			• 평생교육참여율	• 평생교육참여시간	• 평생교육참여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교생활만족도	• 교육내용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부모학교 교육만족도
			• 학습시간	• 학습종류별 학습시간 • 사교육시간	• 학습시간
		교육효과	• 교육년수	• 고등교육 이수율	• 교육년수
			• 기초학력미달률	•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 TIMSS 수학·과학 성취
			• 대학졸업자취업률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유휴청년층(NEET)비율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
	문화와 여가	문화지원	• 문화재정비율		
			• 문화여가비지출	•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여가 활동	• 문화예술관람률	•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 독서율	• 서적종류별 독서율	
			• 생활체육참여율	• 스포츠경기관람률	
			• 여가시간	• 여가활동종류별 여가시간 • 휴가활용률	• 여가시간
			• 여가만족도		
		미디어	•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주거	주택공급· 관리	• 주택 수	•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 주택보급률 • 임대주택수 • 멸실주택수	• 주택 수
			• 주택건설 수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수 • 임대주택건설 수	• 주택건설 수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가격변동률
			• 주택전세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거상황	• 주택임대료비율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소득대비주택가격
			• 자가점유율	• 주거점유형태 •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 자가점유율
			• 주거면적	• 소득계층별 주거면적	• 주거면적
			• 주거환경만족도	• 주택만족도	
	교통	교통공급	• 승용차등록대 수	• 도로연장 • 철도연장	• 승용차등록대 수
		교통수요	•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 대중교통만족도 • 자동차평균주행속도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 통근시간	• 통학시간 • 1시간이상통근통학인구비율	• 통근시간
		교통환경	• 자동차에너지소비량	• 차종별 평균연비 • 차량유종별 평균연비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 친환경자동차보급률	• 교통부문신재생 에너지소비율
		교통비용	• 교통비지출	• 소비수준별 교통비	
			• 교통의 사회적비용		
		교통사고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안전	범죄	• 범죄율	• 범죄자수 • 소년범죄자율	• 살인범죄율
			• 범죄피해율		
			• 재범률	• 교도관수대비 수용자수	
		치안	• 경찰관 수	• 민간경비원 수	• 경찰관 수
		재해	•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주의보·경보발효횟수	
			• 화재피해액		
		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안전인식도	• 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 범죄두려움		• 범죄두려움
	사회 통합	정치 및 사회참여	• 선거투표율		• 국회의원선거투표율
			• 여성국회의원비율	•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 여성국회의원비율
			• 사회단체참여율		
		신뢰와 투명성	• 기관신뢰도		• 정부 및 사법기관신뢰도
			• 대인신뢰도		• 대인신뢰도
			•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관계	• 자원봉사참여율	• 후원 및 기부 참여율	
			• 사회적 고립도		• 사회적 고립도
		삶의 기회와 만족	•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 주관적 계층인식	
			•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 자살률		• 자살률
		사회보장	• 공공복지예산비율		• 공공복지예산비율
			• 공적연금수급률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	
환경	생활 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대기오염도
			• 환경소음도	• 소음·진동민원건수	
		물환경	• 하수도보급률	• 하천수질오염도	• 하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먹는물수질기준 초과율	• 상수도보급률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폐기물·유해물질	• 폐기물발생량	• 폐기물재활용률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 화학물질배출량	• 방사성폐기물발생량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 환경보호비용	• 환경예산	• 환경보호비용
			• 환경향상체감도	• 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	생물다양성	• 멸종위기종	• 야생생물유전자원	• 멸종위기종
			• 자생생물종	• 농업종자유전자원	• 자생생물종
		토지산림	• 경지면적		• 1인당 경지면적
			• 생태경관보존지역면적		• 생태보호지역면적
			• 유기농경작면적률	•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 유기농경작면적률
			• 산림면적	• 산지타용도전환면적	• 산림지역면적
		해양수산	• 총 허용어획량 소진율		
			• 연안습지면적	• 해양보호구역면적	• 습지면적
		수자원	• 1인당 취수량	• 지하수이용량	• 1인당 상수도공급량
		에너지	• 1차 에너지 공급량	• 1인당 에너지소비량 • GDP대비에너지소비량	• 1차 에너지 공급량
			• 전력생산량	• 1인당 전력소비량 • GDP대비전력소비량	• 전력생산량
			•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 재생가능에너지시설 용량 • 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출처: 석현호 외 (2014)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부록 3〉 삶의 질 지표

분야	영역	지표	영역	지표
물질 영역	소득 · 소비 · 자산	1인당 GNI	고용 · 임금	고용률
		균등화 중위소득		실업률
		균등화 중위소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가구평균 순자산		근로시간
		지니계수		저임금근로자비율
	사회 복지	상대적빈곤율	주거	일자리 만족도
		소득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소비생활만족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공적 연금 가입률		통근/통학 소요시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주거비용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환경 만족도
비 물질적 영역	건강	기대수명	교육	유아교육 취학율
		고혈압 유병률		고등교육 이수율
		당뇨 유병률		평생교육 참여율
		주관적 건강평가		학업 중단율
		스트레스 인식정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비만율		PISA 백분율 순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대졸생 취업률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학교 교육 효과
	문화 · 여가	평균 여가시간	가족 · 공동체	가족접촉 빈도
		여가활동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한부모 가구 비율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독거 노인 비율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자살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사회적 관계망
	시민 참여	투표율	안전	사회단체 참여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지역사회 소속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강력범죄 발생률
		시민의식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부패인식지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대인신뢰		도로 사망률
		기관신뢰		아동안전 사고 사망률
	환경	에너지 빈곤층 비율	주관적 웰빙	아동피해 경험률
		미세먼지 농도		산업재해율
		하수도 보급률		화재 발생 건수
		폐기물 재활용 비율		삶에 대한 만족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긍정정서
		기후변화 불안도		부정정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 환경 만족도		

출처: 심수진 · 이희길 (2016)